

부모 양육행동 유형 연구: 독립성 및 주체성 증진과 심리적 통제를 이용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권 오 연¹⁾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임 정 하²⁾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독립성 증진, 주체성 증진, 심리적 통제 차원을 바탕으로 부모 양육행동을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대학생의 자율성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전국에 있는 대학교 재학생 44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든 측정도구들은 자기보고식으로 평가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잠재프로파일 분석, 일원변량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독립성 증진, 주체성 증진, 심리적 통제에 따른 부모 양육행동 유형은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각각 자율성 지지형(55.6%), 통부-자모형(4.5%), 자부-통모형(3.4%), 심리적 통제형(36.5%)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심리적 통제형 부모의 자녀들은 통부-자모형 부모나 자율성 지지형 부모의 자녀들보다 자율성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각 유형에 따른 보다 정확한 부모 개입방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생의 긍정적인 발달과 부모자녀관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부모 양육행동, 독립성 증진, 주체성 증진, 심리적 통제, 잠재프로파일 분석

* 본 논문은 2021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1)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아동학 전공, 박사과정 수료

2)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E-mail: jhlim@korea.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성인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은 부모에게서 독립된 개별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 속에서 대학생들은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자율성 발달이라는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Blos, 1979; Havinghurst, 1972). 자율성이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유능감을 느끼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본인의 삶을 선택하고 주도하는 능력이다(Noom, Deković, & Meeus, 2001). 대학생들이 자율성을 발달시키게 되면 부모에게 계속 의존하지 않고, 보다 더 성숙하고, 더 책임감 있게 성장하게 된다(Cullaty, 2011). 최근 선진국에서는 대학생들의 졸업, 취업, 결혼의 시기가 과거에 비해 지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이 등장한 이 시기를 Arnett(2000)은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라고 명명하였다. 한국 사회의 대학생들도 이 시기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은 부모의 계속된 영향력 속에서 자율성 발달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5)의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많고,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경우도 많다.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는 높은 교육열로 아동기 및 청소년기 동안에는 학업 역량과 경쟁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로 인해, 해당 시기 학생들의 자율성을 다방면으로 충분히 발달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으

며, 대학생이 되어서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율성을 발달시켜 나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여전히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음과 동시에, 독립된 성인으로 기능하기 위해 자율성을 계속 발달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율성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지지해주는 양육행동인 독립성 및 주체성 증진과 이를 저해하는 양육행동인 심리적 통제를 중심으로 양육행동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양육행동으로 독립성 증진과 주체성 증진을 들 수 있다(Soenens et al., 2007). 독립성 증진(promotion of independence: PI)은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타인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양육행동이다. 주체성 증진(promotion of volitional functioning: PVF)은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자신만의 내재화된 가치나 진정한 관심사에 기반한 행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양육행동이다. 독립성 증진과 주체성 증진은 자녀가 스스로 개인적인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부모로부터의 독립 여부와 부모의 조언 유무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독립성 증진 양육행동의 목표는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게서 신체적, 행동적, 정서적, 인지적으로 독립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의 독립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부모들은 자녀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부모의 지도나 조언 없이 자녀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정서적 지지를 구하거나 의존하

지 않고,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양육하고자 한다(Blos, 1979; Soenens & Beyers, 2012; Steinberg & Silverberg, 1986). 하지만 부모의 독립성 증진 노력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부모가 독립성을 증진하고자 할수록 자녀의 독립심이 높아지고 대학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였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Beyers & Goossens, 2003), 자녀의 심리사회적 기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나(Soenens et al., 2007), 알코올 중독과 같은 문제 행동을 증가시켰다는 보고도 찾아볼 수 있다(Van Petegem, Beyers, Vansteenkiste, & Soenens, 2012).

주체성 증진 양육행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모로부터의 독립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들이 자녀만의 내재화된 의지와 동기에 따라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녀의 주체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관점을 중시하고, 자녀들이 스스로의 가치와 목표를 생각하도록 한다. 또한 자녀들이 발달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선택을 하게 도와주며, 선택지를 제한할 때는 자녀에게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준다(Deci, Eghrari, Patrick, & Leone, 1994). 뿐만 아니라 자녀의 주체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원한다면 조언과 안내를 제공해주며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는다. 부모의 주체성 증진 양육행동은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부모가 주체성 증진 양육행동을 할수록 자녀는 우울을 덜 경험하고, 자기가치감이 높아지며, 학업적으로도 잘 참여하는 등

심리사회적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Marbell-Pierre, Grolnick, Stewart, & Raftery-Helmer, 2019).

다음으로, 자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심리적 통제를 들 수 있다. 심리적 통제란 부모가 자녀의 심리적·정서적 경험과 표현을 제한하고 자녀의 관점을 하찮게 여기고 무효화하며 자녀를 조종하고자 하는 양육행동이다(Barber, 1996). 부모가 심리적으로 자녀를 통제하는 것은 자녀의 생각, 감정, 부모에 대한 애착을 방해하고 조종하는 행동이며, 죄책감 유발, 조건적 애정, 애정 철회, 불안 유도, 자녀의 관점 무효화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여 표현될 수 있다(Barber & Harmon, 2002).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부모가 심리적으로 통제할수록 대학생 자녀가 우울과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고(신희수, 안명희, 2013), 기본심리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현지, 서수균, 2017; 이소담, 신나나, 2018).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부모의 독립성 증진과 주체성 증진을 포함하는 자율성 지지 행동과 심리적 통제 행동은 하나의 축에서 양극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학자들은 자율성 지지와 심리적 통제를 단일 차원이 아닌, 구분되는 차원의 양육행동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Barber, Bean, & Erickson, 2002; Soenens, Vansteenkiste, & Sierens, 2009). 이들은 동일한 부모에게 두 가지 특성의 양육행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점에 착안해 이들을 구

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율성 지지와 심리적 통제의 관계는 자율성 지지 행동의 두 하위 차원(독립성 증진, 주체성 증진)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부모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의 기준과 목표를 따르게 만들려는 양육행동으로(Barber et al., 2002), 자녀가 타율적으로 행동하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이는 자녀 개인의 의지와 목표, 가치에 따라 행동하도록 지지해주는, 즉 자녀의 주체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양육행동과는 정반대가 되므로 심리적 통제와 주체성 증진 행동이 한 개인 내에서 동시에 나타나기는 어렵다. 반면, 심리적 통제가 독립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양육행동과는 뚜렷이 상반된다고 보기 어렵다(Soenens & Vansteenkiste, 2010). 예를 들면, 자녀는 부모에게서 독립하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기준에 따라 자녀를 독립시키려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자녀의 자율성 발달과 직결되는 부모의 독립성 증진, 주체성 증진, 심리적 통제를 바탕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유형화해 보고자 한다.

이와 유사한 시도는 기존 Soenens 등의 연구(2009)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Soenens 등(2009)은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독립성 증진, 주체성 증진, 심리적 통제에 따른 양육행동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양육행동 집단은 4가지로 나타났다. 4가지 집단의 비율은 주체적 의존(volitional dependence), 통제적 독립(controlling independence), 주체적 독립(volitional independence), 통제적 의존(controlling dependence) 집단 순으로

높았다. 각 집단들의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부모가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독립성을 증진해주는 것과 한 개인 내에서 함께 나타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주체성을 증진해주는 것과는 함께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어떻게 유형화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양육행동 유형이나 각 유형의 비율은 서양의 연구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나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은 상호관계지향적 문화권인지 혹은 개인독립지향적 집단주의 문화권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관계지향적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에 비해 가족 간의 상호의존과 긴밀한 유대감을 강조한다. 또한 부모자녀관계가 서양에 비해 위계적인 구조이며,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부모와 자녀 간 일체감을 강조한다(정옥분, 2015). Dwairy와 Achoui(2010)는 문화권에 따른 부모의 통제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상호관계지향적 문화권인 동양의 부모들은 개인독립지향적 문화권인 서양의 부모들보다 자녀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녀들을 더 통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중국의 청소년들은 미국의 청소년들에 비해 본인의 부모들이 자율성을 덜 지지해준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Lekes, Gingras, Philippe, Koestner, & Fang, 2010). 이와 같이 상호관계지향적 문화권인 한국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은 개인독립지향적 문화권인 서양 부모자녀관계의 특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더불어, 서양과는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동기

와 청소년기 동안 과도한 학구열과 과열된 경쟁으로 부모는 자녀의 일상과 학업에 다방면으로 관여하고, 부모의 관여를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당연한 부분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를 고려하면, 한국 사회에서 독립성 증진, 주체성 증진, 심리적 통제에 따른 양육행동 유형은 서양의 경우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으며, 유형들의 분포 비율이 서양 연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양육행동을 각각 평가하고 이들을 이용해 양육행동 유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점수를 합산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구분 없이 양육행동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각기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Bosco, Renk, Dinger, Epstein, & Phares, 2003; Russell & Saebel, 1997). 선행연구(최임숙, 윤석환, 2016)에 따르면 대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심리적 통제 수준은 다르게 인식되었다. 예를 들면, 대학생들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율성을 더 많이 지지해준다고 지각했으며, 심리적 통제는 부모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다른 연구(Rogers, Memmott-Elison, Padilla-Walker, & Byon, 2019)에 따르면, 자녀들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심리적으로 통제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행동 수준의 영향은 그 대상이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부모의 양육행

동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한 통계적 기법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사용하고자 한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혼합모형으로, 인간이 갖는 복잡한 심리적 특성을 더욱 잘 반영해준다. 또한, 다소 임의적인 점수에 의해 집단을 구분하는 군집분석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추정치를 제공하고 더 높은 집단 분류의 정확성을 보인다(민여준, 2015). 따라서 잠재프로파일 분석 기법을 사용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대학생의 부모 양육행동 유형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분류된 양육행동 유형별로 대학생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율성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자신의 행동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경향성인 자율성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으로, 이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개인이 속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Deci & Ryan, 2000). 선행연구(Cullaty, 2011)에 의하면, 부모가 대학생 자녀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책임감을 격려하고 불필요한 통제를 하지 않는 것은 자녀의 자율성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부모가 너무 많은 개입을 하면, 이는 자녀들로 하여금 자율성을 방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였다. 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부모의 독립성 증진, 주체성 증진, 심리적 통제 유형들에 따라 대학생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율성 수준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독립성 및 주체성 증진, 심리적 통제를 이용하여 한국의 사회문화

적 맥락 내 양육행동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대학생들의 자율성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유형에 따른 보다 정확한 부모 개입방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독립성 및 주체성 증진과 심리적 통제에 따른 양육행동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독립성 및 주체성 증진과 심리적 통제에 따른 양육행동 유형에 따라 대학생의 자율성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4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에서 남학생은 218명(49.4%), 여학생은 223명(50.6%)이었다. 연구대상의 평균연령은 24.06세($SD = 2.62$)이었다. 학년분포를 살펴보면, 대학교 1학년 105명(23.8%), 2학년 101명(22.9%), 3학년 100명(22.7%), 4학년 134명(30.4%), 5학년 1명(0.2%)이었다. 부모와의 동거 여부를 살펴보면 동거 중인 대학생은 290명(65.8%), 동거하지 않는 대학생은 151명(34.2%)이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부: 58.7%, 모: 5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관리직이 94명(21.3%)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 및 관리직 72명(16.3%), 기술공 및 기능직 70명(15.9%)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무직이 166명(37.6%)으로 가장 많았고, 판매 및 서비스직 83명(18.8%), 전문직 73명(16.6%)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부모의 독립성 증진과 주체성 증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독립성 증진과 주체성 증진을 측정하기 위해 Soenens 등(2007)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자율성 지지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독립성 증진은 7문항, 주체성 증진은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독립성 증진 요인(Promotion of Independence: PI, 7문항)은 부모가 자녀들이 독립적 표현, 생각, 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양육행동을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항상 문제의 양면을 모두 보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신다’ 등이 있다. 주체성 증진 요인(Promotion of Volitional Functioning: PVE, 6문항)은 부모가 자녀들이 내재화된 가치나 진정한 관심사에 기반한 행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양육행동을 측정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평소에 기꺼이 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려 하신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Soenens 등(2007)의 원척도를 번안해 자료를 수집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척도의 4번 문항인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집에

서 정치나 종교 등에 대해 식구들과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요인 부하량이 매우 낮아 최종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이 척도는 부모의 독립성 및 주체성 증진 양육행동에 대해 대학생 자녀가 응답하는 방식이다. 각 항목에 대해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5점)'까지 응답하게 되어 있다. 주체성 증진 문항 중 '나의 아버지/어머니는 아버지/어머니 방식대로 하기를 고집하신다' 문항은 역채점한다. 하위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해당 양육행동을 많이 한다고 자녀가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Soenens 등(2007)은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고, Cronbach's α 는 독립성 증진 .76, 주체성 증진 .85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아버지의 독립성 증진 .76, 아버지의 주체성 증진 .89, 어머니의 독립성 증진 .78, 어머니의 주체성 증진 .89로 나타났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Barber(1996)가 개발한 PCS-YSR(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 Report)을 최명진(2010)이 수정·번안하여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다음과 같은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적 표현의 제약 요인(3문항)은 부모가 자녀의 언어적 표현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동 등을 측정하며, 감정의 무효화 요인(3문항)은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무시하고, 오해하고, 평가하여 무효화하는 행동 등을 측정한다. 개인적 공격 요인(3문항)은 부모가 자녀의 가족 내에

서의 가치나 역할을 공격하는 행동 등을 측정하고, 죄책감 유도 요인(2문항)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족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행동 등을 측정한다. 애정 철회 요인(3문항)은 부모가 기대한 행동을 자녀가 수행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했을 경우 애정과 관심을 철회하는 행동 등을 측정하며, 기괴한 정서적 행동 요인(2문항)은 부모-자녀 상호작용에서 부모가 관심 표현과 공격적 표현 사이를 오가며 보이는 불안정한 정서적 행동 등을 측정한다.

본 척도는 대학생 자녀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각 항목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심리적으로 많이 통제한다고 자녀가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명진(2010)은 구인타당도, 교차타당도, 변별타당도, 수렴타당도, 준거관련타당도를 검증하였고, Cronbach's α 는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89,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92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 .9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94로 나타났다.

자율성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Bekker(1991)가 개발하고 Noom, Deković과 Meeus(1999)가 재구성한 자기보고용 자율성 질문지(Self-Report Autonomy Questionnaire)를 이동미(201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다음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도적 자율성 요인(5문항)은 몇 가지 선택들을 구체화하고, 결정을 내리며, 목표를 확고히 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정서적 자율성 요인(5

문항)은 부모와 또래에게서 정서적으로 독립되어 자신만의 선택과 목표에 대해 갖는 자신감을 측정하고, 기능적 자율성 요인(5문항)은 본인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전략을 발달시키는 능력을 측정한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게 된다. 15개 문항 중 자율성과 반대되는 타율성의 정도를 묻는 8개 문항은 역채점을 하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자율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Noom 등(2001)은 해당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이 동미의 연구(2016)에서 Cronbach's α 는 태도적 자율성 .80, 정서적 자율성 .68, 기능적 자율성 .78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태도적 자율성 .80, 정서적 자율성 .71, 기능적 자율성 .78, 전체 .87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대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orean Social-Science Data Center, KSDC)를 통해 제작한 후, 전국 8개의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모집 공고문을 업로드하여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목적, 설문에 대한 유의사항, 소요시간 및 비밀 보장 원칙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안내하였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익명으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참여 학생들에게는 모두 작은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대상자가 아닌 9부를 제

외한 441부(98.0%)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 24.0과 Mplus 8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독립성 증진, 주체성 증진, 심리적 통제 및 자율성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독립성 증진, 주체성 증진, 심리적 통제 및 자율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대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유형화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보지수, 분류의 질, 모형비교검증이라는 3가지 통계적 기준을 사용하였다. 정보지수는 AIC(Akaike, 1974), BIC(Schwartz, 1978), Adjusted BIC(Sclove, 1987)를 이용하였으며, 이 값은 작을수록 모형의 합치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류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Entropy(Celeux & Soromenho, 1996) 값을 사용하였다. Entropy 값은 0-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보통은 .8 이상이면 좋은 모형으로 볼 수 있다(Clark, 2010). 모형비교검증은 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Lo, Mendell, & Rubin, 2001)와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McLachlan & Peel, 2000)를 사용하였다. 이는 잠재프로파일이 k 개인 경우와 $k+1$ 개인 경우를 비교해서 더 적합한 모형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결과의 p 값이 유의하면, k 개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이 $k+1$ 개의 잠재프로파일 모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나은 합치도를 보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k 개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선택한다. 반면에, 결과의 p 값이 유의하지 않다면, $k-1$ 개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선택한다. 넷째, 대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독립성 증진, 주체성 증진, 심리적 통제 수준을 바탕으로 한 양육행동 유형에 따른 대학생들의 자율성 획득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독립성 증진, 주체성 증진, 심리적 통제에 따른 양육행동 유형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독립성 증진, 주체성 증진, 심리적 통제 및 자율성 간의 관계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을 유형화하기에 앞서, 부모의 독립성 증진, 주체성 증진,

심리적 통제, 대학생의 자율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아버지의 주체성 증진과 심리적 통제 간의 관계($r = -.65$, $p < .001$)는 독립성 증진과 심리적 통제 간의 관계($r = -.30$, $p < .001$)보다 더 강한 부적 관련성을 보였다. 어머니의 주체성 증진과 심리적 통제 간의 관계($r = -.67$, $p < .001$)도 독립성 증진과 심리적 통제 간의 관계($r = -.36$, $p < .001$)보다 더 강한 부적 관련성을 보였다.

한편, 대학생의 자율성은 어머니의 독립성 증진($r = .20$, $p < .001$)이나 주체성 증진($r = .23$, $p < .001$)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독립성 증진($r = .11$, $p < .05$)이나 주체성 증진($r = .13$, $p < .01$)과의 관계보다 더 강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대학생의 자율성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의 관계($r = -.21$, $p < .001$)에서 아버지의 심리적 통제와의 관계($r = -.13$, $p < .01$)보다 더 강한 부적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부모의 독립성 증진, 주체성 증진, 심리적 통제 및 대학생의 자율성 간의 상관관계 ($N = 441$)

			심리적 통제		자율성
			부	모	
자율성 지지	부	독립성 증진	-.30***	-.17***	.11*
		주체성 증진	-.65***	-.21***	.13**
	모	독립성 증진	-.09	-.36***	.20***
		주체성 증진	-.24***	-.67***	.23***
자율성			-.13**	-.21***	-

* $p < .05$. ** $p < .01$. *** $p < .001$.

잠재프로파일의 수 결정

대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독립성 증진, 주체성 증진과 심리적 통제에 따른 양육행동을 유형화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모형적합도 지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AIC, BIC, Adjusted BIC는 값이 작을수록 모형 적합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표 2에서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많아질수록 AIC, BIC, Adjusted BIC 값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Entropy 값은 .80 이상이면 좋은 모형으로 볼 수 있는데,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3개에서 5개일 때까지 모두 .80 이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4개일 때 .911로 분류의 질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LRT와 BLRT 값은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k 개일 때와 $k-1$ 개일 때를 비교하여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 보여주는 모형비교검증 값이다. LRT, BLRT 값에 따르면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4개인 모형까지 이전 모형보다 적합도가 유의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정보지수, 분류의 질, 모형비교검증과 같은 모형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의 최종모형으로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4개인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잠재프로파일별 특성 분석

최종모형으로 결정된 네 개의 부모 양육행동 유형별 하위요인 점수는 표 3과 같다. 부모의 독립성 증진, 주체성 증진, 심리적 통제 점수를 기반으로 유형별 차이를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화 점수인 z 점수로 변환하였으며, 이는 그림 1과 같다. z 점수는 전체 표본의 평균과 각 변인의 평균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점수이며, 이를 통해 잠재집단별 비교가 가능하다.

잠재집단의 첫 번째 유형(55.6%)에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하였다. 첫 번째 유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독립성 증진과 주체성 증진 점수는 전체 평균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으며, 심리적 통제 점수는 전체 평균보다 조금 더 낮게 나타나 이를 ‘자율성 지지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즉, 자율성 지지형 부모의 자녀들은 다른 유형의 부모를 둔 자녀들에 비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의 독립성과 주체

표 2.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모형적합도 지수

k	df	AIC	BIC	Adjusted BIC	Entropy	LRT p	BLRT p	집단 내 분류 비율 (%)				
								1	2	3	4	5
2	19	5,945.043	6,022.438	5,962.438	.794	< .001	< .001	41.7	58.3			
3	26	5,744.443	5,850.758	5,768.247	.885	< .001	< .001	37.6	57.6	4.8		
4	33	5,582.563	5,717.501	5,612.775	.911	.041	< .001	55.6	4.5	3.4	36.5	
5	40	5,490.283	5,653.844	5,526.903	.866	.069	< .001	11.8	4.8	3.3	30.5	49.6

주. k = 잠재프로파일의 수, df = 자유도. AIC =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BIC =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LRT = 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BLRT =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s compared with a ($k-1$) class model.

표 3. 부모 양육행동 유형별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441$)

		유형 1 (55.6%)	유형 2 (4.5%)	유형 3 (3.4%)	유형 4 (36.5%)	전체 (100%)
		$M (SD)$	$M (SD)$	$M (SD)$	$M (SD)$	$M (SD)$
아버지	독립성 증진	3.56(.61)	1.99(.64)	3.08(.77)	3.01(.65)	3.27(.74)
	주체성 증진	4.10(.54)	1.83(.65)	4.01(1.01)	3.10(.68)	3.63(.87)
	심리적 통제	1.67(.48)	3.34(.71)	1.84(.86)	2.66(.70)	2.11(.80)
어머니	독립성 증진	3.62(.60)	3.84(.77)	1.90(.65)	2.94(.61)	3.33(.75)
	주체성 증진	4.18(.54)	4.58(.39)	1.50(.65)	3.08(.55)	3.71(.87)
	심리적 통제	1.69(.54)	1.57(.59)	4.26(.66)	2.77(.60)	2.17(.86)

주. 음영 칸은 변인별 전체 표본의 평균보다 각 유형의 평균이 높은 경우에 해당함. 볼드체는 각 변인별 평균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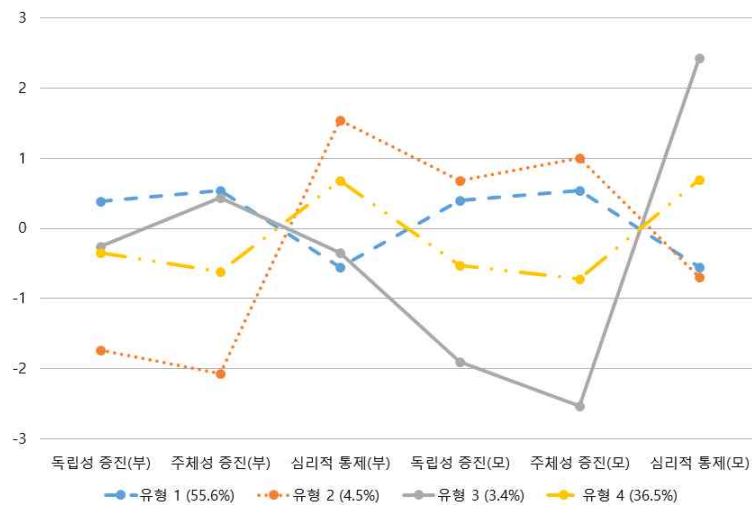


그림 1. 부모 양육행동 잠재집단 유형(z점수 변환)

성을 잘 지지해주고, 심리적으로는 통제하지 않는 편이라고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잠재집단의 두 번째 유형(4.5%)에는 소수의 응답자가 속하였다. 두 번째 유형에서 아버지의 독립성 증진과 주체성 증진 점수는 가장 낮게 나타났고 심리적 통제 점수는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반면에 두 번째 유형에서 어머니의 독립성 증진과 주체성 증진 점수는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심리적 통제 점수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두 번째 유형을 ‘통부-자모(統父自母)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즉, 통부-자모형 부모의 자녀들은 다른

유형의 부모의 자녀들에 비해 아버지가 심리적으로 자신을 통제한다고 지각하는 편이었으나, 어머니는 자신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잘 지지해준다고 지각하는 편이었다.

잠재집단의 세 번째 유형(3.4%)에는 가장 적은 수의 응답자가 속하였다. 세 번째 유형에서 아버지의 독립성 증진과 심리적 통제 점수는 전체 평균보다 약간 낮았으나, 주체성 증진 점수는 전체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유형에서 어머니의 독립성 증진과 주체성 증진 점수는 가장 낮았으며, 심리적 통제 점수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세 번째 유형을 ‘자부-통모(自父統母)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즉, 자부-통모형 부모의 자녀들은 다른 유형의 부모를 둔 자녀들에 비해 아버지가 자신의 주체성은 잘 지지해주지만, 독립성을 지지해주지도 않고, 심리적으로도 통제하지도 않는 편이라고 지각하였으며, 어머니는 본인을 심리적으로 매우 통제한다고 지각하는 편이었다. 끝으로 잠재집단의 네 번째 유형(36.5%)에는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속하였다. 네 번째 유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독립성 증진과 주체성 증진 점수는 전체 평균보다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심리적 통제 점수는 전체 평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심리적 통제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심리적 통제형 부모의 자녀들은 다른 유형의 부모의 자녀들에 비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독립성과 주체성을 지지해주지 않고 심리적으로 통제한다고 지각하는 편이었다.

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자율성 수준의 차이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행동 유형에 따라 대학생의 자율성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집단 간 평균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é 방식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에 따라 대학생의 자율성 평균을 살펴본 결과, 통부-자모형 대학생 자녀들의 자율성 수준($M = 3.34$, $SD = .96$)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율성 지지형($M = 3.13$, $SD = .65$), 자부-통모형($M = 2.92$, $SD = .97$), 심리적 통제형($M = 2.85$, $SD = .56$) 순으로 대학생 자녀들의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

표 4.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자율성 수준의 차이 ($N = 441$)

종속변수	잠재계층	평균	표준편차	<i>F</i>	<i>p</i>
자율성	자율성 지지형 ^a	3.13	.65	7.82***	< .001
	통부-자모형 ^a	3.34	.96		
	자부-통모형 ^{ab}	2.92	.97		
	심리적 통제형 ^b	2.85	.56		

주. 같은 문자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다른 문자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냄.

타났다. 네 개의 유형들에 따른 대학생의 자율성 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통제형 대학생 자녀들의 자율성 수준이 통부-자모형과 자율성 지지형 대학생 자녀들의 자율성 수준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 = 7.82,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독립성 증진, 주체성 증진, 심리적 통제에 따라 양육행동 유형이 어떻게 나뉘는지 살펴보고, 각 유형별 대학생들의 자율성 수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들을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대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독립성 증진, 주체성 증진, 심리적 통제에 따라 양육행동의 유형이 어떻게 나뉘는지 살펴보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형은 최종적으로 네 개의 유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유형은 독립성 증진, 주체성 증진, 심리적 통제의 특성에 따라 자율성 지지형(55.6%), 통부-자모형(4.5%), 자부-통모형(3.4%), 심리적 통제형(36.5%)으로 분류되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자율성 지지형 부모의 대학생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가 독립성과 주체성을 모두 잘 지지해주고 심리적 통제는 하지 않는다고 지각하였다. 즉, 자율성 지지형 부모의 자녀들은 독립적이고 주체적이며

통제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부모가 자신의 자율성을 지지해준다고 보고했다. 자율성 지지형 부모는 전체 표본의 약 56%로, 대다수의 대학생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신의 자율성을 지지해준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전통사회에서의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모델인 엄부자모(嚴父慈母)와는 다른 양상이다. 최근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조순옥, 채수은, 2016)에 따르면, 대학생은 아버지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즉, 아버지의 양육행동도 어머니와 유사하게 온정적이고 지지적으로 지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율성 지지형에 속한 부모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도 이와 유사한 현상으로 해석해볼 수 있으며, 자녀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태도는 과거와 다르게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율성 지지형과 반대의 특성을 보이는 심리적 통제형 부모는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유형은 전체 표본의 약 36%로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도록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양육행동을 보였다. 심리적 통제형 부모의 특징은 부모의 각 양육행동 평균 점수와 z 점수를 비교하여 보면 보다 뚜렷이 나타난다. 심리적 통제형 부모의 대학생 자녀들이 지각한 독립성 증진, 주체성 증진, 심리적 통제의 평균은 모두 3점 보통 수준이었다. 하지만 z 점수를 통해 다른 유형들과 심리적 통제형을 비교했을 때, 심리적 통제형 부모의 자녀들은 다른 유형의 자녀들보다 부모가 본인을 심리적으로 통제한다고 지각하는 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처한 사

회적 상황에 비추어 해석해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 동안의 과도한 학구열과 경쟁으로 인해,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관여와 관심을 쏟고 자녀는 그런 부모의 관여를 익숙해하고 많은 부분을 부모에게 의존하곤 한다. 이러한 부모자녀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자녀가 대학교에 진입하더라도 바로 자율적인 성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부모와 심리적,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이에, 성인기로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해주기보다는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통제하게 되고, 자녀 또한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에 만성적으로 인지하게 되어 본인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통제받고 있다는 사실을 크게 지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나머지 10% 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와 심리적 통제 수준이 대조를 이루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통부-자모(統父自母)형 부모의 대학생 자녀들은 다른 유형의 부모를 둔 자녀들에 비해 아버지가 본인을 심리적으로 통제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잘 지지해준다고 지각하는 편이었다. 즉, 통부-자모형 아버지는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도록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편이지만, 어머니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방법으로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해주는 편을 볼 수 있다. 이 유형의 비율은 4.5%로 나타나, 엄하고 통제적인 아버지와 지지해주는 어머니는 우리 사회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이

와 반대로, 자부-통모(自父統母)형 부모의 대학생 자녀들은 다른 유형의 부모의 자녀들에 비해 본인의 아버지는 독립성을 증진해주지도, 심리적으로 통제하지도 않는 편이라고 지각하였고, 주체성은 잘 증진해주는 편이라고 지각하였다. 이는 자부-통모형 아버지가 통제적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주체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자녀가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것도 충분히 허용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자부-통모형 부모의 대학생 자녀들은 본인의 어머니가 자신을 심리적으로 많이 통제하고 있다고 지각하였다. 즉, 자부-통모형 어머니는 자녀가 본인에게 의존하도록 생각, 감정, 표현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나타난 네 개 유형의 독립성 증진, 주체성 증진, 심리적 통제의 특성을 통해 세 가지 양육행동 차원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율성 지지형, 통부-자모형, 심리적 통제형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부-통모형의 어머니의 경우, 심리적 통제가 독립성 증진 및 주체성 증진과 한 개인 내에서 함께 나타나지 않는 반대되는 특성을 보였다. 그런데 자부-통모형 아버지의 경우 심리적 통제와 독립성 증진이 한 개인 내에서 함께 나타나 동일한 방향성을 보였으나, 심리적 통제와 주체성 증진은 상반되는 특성을 보였다. 즉, 부모가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독립성을 증진해주는 것과 항상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주체성을 증진해주는 것과는 늘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독립성 증진, 주체성 증진, 심리적 통제 간의 관계는 Soenens

등의 연구(2009)에서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의 부모 양육행동 유형의 분포 비율과 Soenens 등의 연구(2009)에서 확인된 집단들의 분포 비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Soenens 등의 연구(2009)의 양육행동 집단의 비율은 주체적 독립(25%), 주체적 의존(32%), 통제적 독립(28%), 통제적 의존(15%)으로 고르게 분포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나타난 부모 양육행동 유형을 살펴보면, 자율성 지지형(55.6%)과 심리적 통제형(36.5%)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즉, 서양과 한국의 부모 양육행동 유형의 분포가 다른 양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율성 지지형 부모와 통부-자모형 어머니는 주체적 독립 집단과 유사하였다. 그리고 통부-자모형 아버지와 심리적 통제형 부모는 통제적 의존 집단과 유사하였으며, 자부-통모형 아버지는 주체적 의존 집단과 유사하였다. 다만, Soenens 등의 연구(2009)에서 나타난 통제적 독립 집단은 본 연구의 유형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적 독립 집단은 통제적인 방법으로 자녀가 독립하게 하는 부모 집단이며, 서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집단(28%)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본 연구에서는 통제적 독립 특성을 보이는 유형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서구의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부모자녀관계와 달리 더욱 친밀하고 결속력이 강한 부모자녀관계를 갖는, 상호관계지향적 문화권의 특성(현정환, 2007)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부모 양육행동 유형에 따라 자율성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리적 통제형 부모의 대학생 자녀들의

자율성이 가장 낮았다. 이는 자율성 지지형과 통부-자모형 부모의 대학생 자녀들의 자율성 수준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통제형 부모의 대학생 자녀들의 자율성이 가장 낮은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자녀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지 않고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자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마은애, 손은정, 2014; 이소담, 신나나, 2018)와 일치한다. 또한 자율성 지지형과 통부-자모형 부모의 대학생 자녀들의 자율성이 심리적 통제형 대학생들의 자율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 지지형과 통부-자모형 부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자녀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잘 지지해준다는 것이다. 즉,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자율성 지지가 자녀의 자율성 발달에 중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 아버지의 양육 참여의 중요성이 알려짐에 따라 자녀 양육 및 교육에 관심을 갖는 아버지들이 많아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는 데이터의 경험적 자료에 기반해 결정되기 때문에,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모든 대학생에게 일반화하고 해석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이 반영된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추가

적으로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들이 단일보고 형식으로 평가되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Barber(1996)는 양육방식이 사람에 따라 지각하는 것과 실제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양육행동의 영향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지각이 어떠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자녀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독립성 증진, 주체성 증진, 심리적 통제 양육행동을 기반으로 부모 양육행동을 유형화하였다. 하지만 후속연구에서는 대학생 자녀와 부모가 모두 보고하는 다중보고자 방식으로 평가해서 유형화할 수 있다면 다각적으로 부모자녀관계를 살펴볼 수 있기에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 부모의 독립성 및 주체성 증진과 심리적 통제 차원을 이용해 양육행동을 유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양육행동 유형을 분류한 후, 유형별로 대학생 자녀의 특성 중 하나인 자율성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대학생의 자율성 수준은 부모의 양육행동 외에도 여러 다른 특성에 영향을 받으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율성 수준 관련 결과를 적용하고자 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독립성 증진, 주체성 증진, 심리적 통제에 따른 양육행동 유형이 한국적 맥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으며, 독립성 증진, 주체성 증진, 심리적 통제의 관계가 서구와 달리 한국적 맥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부모의 독립성 증진, 주체성 증진, 심리적 통제에 따른 유형별로 대학생의 자율성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부모 양육행동이 자녀의 자율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가 각 유형에 따른 보다 정확한 부모 개입방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생의 긍정적인 발달과 부모자녀관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마은애, 손은정 (2014).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 욕구 좌절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5),
<https://doi.org/2035-2051.10.15703/kjc.15.5.201410.2035>
- 민여준 (2015). 집단 분류의 통계적 방법 비교: 군집분석, 판별분석, 잠재프로파일분석.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지, 서수균 (2017).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분리-개별화 및 기본 심리욕구 충족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5(2), 23-43.
<https://doi.org/10.35151/kyci.2017.25.2.002>
- 신희수, 안명희 (2013).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와 인정욕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621-641.
- 이동미 (2016). 가족분화가 대학생의 우울에 미

- 치는 영향에 대한 자율성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담, 신나나 (2018).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학생의 불안: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역할. *인간발달연구*, 25(2), 79-97.
<https://doi.org/10.15284/kjhd.2018.25.2.79>
- 정옥분 (2015). 전생애 인간발달의 이론. 서울: 학지사.
- 조순옥, 채수은 (2016). 자녀가 지각한 아버지 페르소나와 양육행동의 관계: 남녀 대학생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4), 61-80.
- 최명진 (2010). 심리적 통제와 안녕감의 관계에서 갈등적 독립의 매개효과 검증.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임숙, 윤석환 (2016). 전문대학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 심리적 통제와 자아정체감의 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8), 167-194.
<https://doi.org/10.21509/KJYS.2016.07.23.8.167>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2015년 가족실태 조사 분석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현정환 (2007).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최근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보육학회지*, 7(1), 95-110.
-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6), 716-723.
<https://doi.org/10.1109/TAC.1974.1100705>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https://doi.org/10.1037/0003-066X.55.5.469>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6.tb01915.x>
- Barber, B. K., Bean, R. L., & Erickson, L. D. (2002). Expanding the study and understanding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 263-28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rber, B. K., & Harmon, E. L. (2002).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B. K. Barber (Ed.),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 15-5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ekker, M. H. J. (1991). *The movable boundaries of the female ego*. Eburon: Delft.
- Beyers, W., & Goossens, L. (2003).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justment to university: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age, and perceived parenting styl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4), 363-382.
<https://doi.org/10.1177/0743558403018004003>
- Blos, P. (1979). *The adolescent passage: Developmental issue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osco, G. L., Renk, K., Dinger, T. M., Epstein, M. K., & Phares, V. (2003). The connections

- between adolescents' perceptions of parents, parental psychological symptoms, and adolescent functioning.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4(2), 179-200.
[https://doi.org/10.1016/S0193-3973\(03\)00044-3](https://doi.org/10.1016/S0193-3973(03)00044-3)
- Celeux, G., & Soromenho, G. (1996). An entropy criterion for assessing the number of clusters in a mixture model. *Journal of Classification*, 13(2), 195-212.
<https://doi.org/10.1007/BF01246098>
- Clark, S. L. (2010). *Mixture modeling with behavioral data*.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Cullaty, B. (2011). The role of parental involvement in the autonomy development of traditional-ag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2(4), 425-439.
<https://doi.org/10.1353/csd.2011.0048>
- Deci, E. L., Eghrari, H., Patrick, B. C., & Leone, D. R. (1994). Facilitating internalizati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62(1), 119-142.
<https://doi.org/10.1111/j.1467-6494.1994.tb00797.x>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1104_01
- Dwairy, M., & Achoui, M. (2010). Parental control: A second cross-cultural research on parent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childr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9(1), 16-22.
<https://doi.org/10.1007/s10826-009-9334-2>
- Havin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3rd ed.). New York: David McKay.
- Lekes, N., Gingras, I., Philippe, F. L., Koestner, R., & Fang, J. (2010). Parental autonomy-support, intrinsic life goals, and well-being among adolescents in China and North America.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9(8), 858-869.
<https://doi.org/10.1007/s10964-009-9451-7>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https://doi.org/10.1093/biomet/88.3.767>
- Marbell-Pierre, K. N., Grolnick, W. S., Stewart, A. L., & Raftery-Helmer, J. N. (2019). Parental autonomy support in two cultures: The moderating effects of adolescents' self construals. *Child Development*, 90(3), 825-845. <https://doi.org/10.1111/cdev.12947>
- McLachlan, G. J., & Peel, D. (2000). *Finite mixture models*. New York: Wiley.
- Noom, M. J., Deković, M., & Meeus, W. H. (1999). Autonomy, attachment and psychosocial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A double-edged sword?. *Journal of Adolescence*, 22(6), 771-783.
<https://doi.org/10.1006/jado.1999.0269>
- Noom, M. J., Deković, M., & Meeus, W. H. (2001).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adolescent autonom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5), 577-595.
<https://doi.org/10.1023/A:1010400721676>

- Rogers, A. A., Memmott-Elison, M. K., Padilla-Walker, L. M., & Byon, J. (2019).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redicts intraindividual decrements in self-regulation throughout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55*(11), 2352-2364.
<https://doi.org/10.1037/dev0000818>
- Russell, A., & Saebel, J. (1997). Mother-son, mother-daughter, father-son, and father-daughter: Are they distinct relationships?. *Developmental Review, 17*(2), 111-147.
<https://doi.org/10.1006/drev.1996.0431>
- Schwartz, G. (1978). Estimating dimensions of a model. *Annals of Statistics, 6*(2), 461-464.
- Sclove, L.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3), 333-343.
<https://doi.org/10.1007/bf02294360>
- Soenens, B., & Beyers, W. (2012). The cross-cultural significance of control and autonomy in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Journal of Adolescence, 35*(2), 243-248.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12.02.007>
-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10). A theoretical upgrade of the concep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roposing new insights on the basis of self-determination theory. *Developmental Review, 30*(1), 74-99.
<https://doi.org/10.1016/j.dr.2009.11.001>
- Soenens, B., Vansteenkiste, M., Lens, W., Luyckx, K., Goossens, L., Beyers, W., & Ryan, R. M. (2007). Conceptualizing parental autonomy support: Adolescent perceptions of promotion of independence versus promotion of volitional functioning. *Developmental Psychology, 43*(3), 633-646.
<https://doi.org/10.1037/0012-1649.43.3.633>
- Soenens, B., Vansteenkiste, M., & Sierens, E. (2009). How are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utonomy-support related? A cluster-analytic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1), 187-202.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8.00589.x>
- Steinberg, L., & Silverberg, S. B. (1986). The vicissitudes of autonomy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7*(4), 841-851.
<https://doi.org/10.2307/1130361>
- Van Petegem, S., Beyers, W., Vansteenkiste, M., & Soenens, B. (2012). On the association between adolescent autonomy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Examining decisional independence from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48*(1), 76-88.
<https://doi.org/10.1037/a0025307>

1 차원고접수 : 2021. 07. 09.

수정원고접수 : 2021. 08. 12.

최종게재결정 : 2021. 09. 27.

Latent Profile Analysis of Parenting Behaviors with Promotion of Independence, Volitional Function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Kwon, Ohyeon

Dept. of Human Ecology,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Lim, JungHa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e study aims to identify a typology of parents who vary in the levels of autonomy-support and psychological control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and to examine autonomy development of adolescent children with the identified profiles of parenting. Participants were 441 undergraduate students recruited from nationwide universities.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including promotion of independence, promotion of volitional function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of father and mother, and autonomy were reported by an adolescent child through web-based questionnair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s, latent profile analysis, and one-way ANOVA. The results of the latent profile analysis revealed that there were four subtypes of parenting as perceived by adolescent children: autonomy-supporting parents (ASP, 55.6%), controlling father and autonomy-supporting mother (CFAM, 4.5%), autonomy-supporting father and controlling mother (AFCM, 3.4%), and psychologically controlling parents (PCP, 36.5%). Adolescent children of the PCP profile showed a significantly lower level of autonomy when compared to the adolescent children of the ASP profile and the CFAM profile. Implications for family intervention and parent education to promote the autonomy development of adolescent children are discussed.

Keywords: parenting behavior, promotion of independence, promotion of volitional functioning, psychological control, latent profile analysis